

독일 출신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를 비판한 14세기 비잔틴 황제 마누엘 팔레올로고스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폭력은 신과 인간영혼의 속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교황의 발언은 종교적 목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교황의 발언을 이슬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무슬림에게 부여된 의무인 지하드(성전)의 폭력성을 비판하였다고 또한 마호메트를 함께 헐뜯은 것으로 해석했다. 교황의 발언에 대해 이슬람권은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전의 아랍인은 목축 민족이었다. 그들은 유대 민족과 같은 뿌리이다. 이슬람의 최고신인 '알라(Allah)'는 '알'이라는 관사와 'Ilah'라는 신(神)의 합성어이다. 즉 유일신을 의미한다. 알라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유일신과 같은 신이다. 알라는 네 번의 계시를 했다고 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일신임을 계시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으며, 예수를 통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마호메트를 통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금강대 불교복지학부 교수

**‘교황의 입’과 종교간 대화**

해서 이웃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완성되지 않은 종교로 본다.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이슬람문화권의 반목은 십자군 전쟁을 들지 않아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적 진리에 대한 태도로서 배타주의(exclusivism)는 오직 한 종교만이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 종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타주의는 '절대진리'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절대성과 최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타협적이고 다른 신앙을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이 입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절대성 주장'은 타종교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타종교와의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느 한 종교만이 감당하여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여러 종교들은 독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관용

적 태도로 서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아직도 서구의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와 진지한 대화를 원한다면 자기종교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요구된다. 즉 과거의 종교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었던 천동설(ptolemaic system)에 입각한 세계관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롭게 요청되는 범인류적 종교관이란 그와는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함께 돌고 있다는 지동설적 세계관으로의 전화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모든 종교는 서로에게 동반자이지 결코 경쟁자이거나 적이 아니므로 서로 배워서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불교는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 그 근본 가르침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와 융화되어 왔다.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대화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배워야 할 종교적 관용과 조화를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부터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의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미국 현지의 조계종 사찰들이 법인 형태의 '미주승가회'를 결성하고 조계종 '해의특별교구'의 모체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지인 포교 활성화와 사찰 사암의 장건주 입적 후 재산 망실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서는, "재산관리나 행정지도 등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미주승가회의 제안과 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귀가 딱 들어맞는 답이다. 그러나 지극히 옳은 답이 대부분 그렇듯,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포교 활성화와 삼보(三寶) 정재(淨財)의 호지라는 동기와 명분을 보면,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해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명분'에 가려진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미주승가회' 결성을 축하하고자 한다.

**‘미주승가회’ 결성의 의미**

먼저 향후 해의특별교구로 승격됨을 전제로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그 '전제'가 성급해 보인다. '미주승가회'가 '해의특별교구'로 지정되는 것이 '승격'인지도 따져볼 문제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형식으로 내용을 규정받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계종이라는 우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우산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승산 스님이 세운 흥법원이나 한마음선원의 미주 지원처럼 독자적으로 포교 기반을 구축한 사찰이나 단체가, '등특과 동시에 재산권과 인사권, 감사권이 미주승가회에 귀속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단계부터 '해의특별교구'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말고, '화이부동(和而不同)' 정신에 입각한 협의체 성격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들이서 함께 가지 말라'고 한 부처님의 전법 선언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불교에서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주에 있는 사찰 하나하나가, 위법망구(爲法亡圖) 정신으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현지인 포교는 물론 '해의특별교구' 설립도 여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윤재학(이동문학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최근 동국대 이사회가 총장 자격요건에서 '불자'라는 단어를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라는 규정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로 변경된 것. 계를 받은 불자가 아니어도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뉴스사이트 붓다뉴스는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동국대 총장의 종교문제를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동국대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참가율기도 뜨거운 총 342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동국대 총장의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불자여야 한다'는 의견이 72%(246명)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또 '타종교 신봉자만 아니라면 불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은 13.7%(47명)를 차지했다. 한편 '상관 없다'는 의견도 14.3%(49명)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기간:9.6~19, 총참가자 342명)

동국대 이사회는 최근 총장자격요건에서 '불자'라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동국대 총장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능력만 있다면 종교는 상관없다 14.3%(49명)
- 타종교 신자만 아니라면 무방하다 13.7%(47명)
- 반드시 불자여야 한다 72%(246명)

**특별기고** **‘벽송 선회(禪會)’를 마치고**



지 리산 벽송사가 근래 한국불교에서 사라졌던 '선회(禪會)'를 9월 8~18일 산철 결제기간 동안 복원했다. 선회는 인거가 끝난 산철기간 동안에도 실참을 병행하면서 교학 강의와 논강으로 선과 교를 뒤는 오랜 전통이지만 불립문자, 사교입선이 강조되면서 해방이후 한국 선원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벽송사 주지 월암 스님과 함께 '벽송선회'를 마련한 법산 스님이 '선회' 개최의미를 담은 기고문을 보내왔다.

요즈음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새로운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고려시대 보조지눌(1158~1210)이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참선 정진하는 막바지에 어떤 불건이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마침 송나라 대혜종고(1089~1163)의 <어록>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고 당장에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보조는 곧 간화선을 수행의 지점으로 삼고 <간화결의론>을 지었다. 그리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정혜결사운동을 실천함에 '담론(談論)'을 하고 선정을 닦으며 안거와 두터에서 부처님 계율에 의지했다'고 하였으니 간화선을 실천실구하면서 논강으로 경책하고 정규를 엄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수행가공이 진각혜심(1178~1234), 태고보우(1301~1381), 나옹해근(1320~1376), 벽송지엄(1464~1534)에 이르렀다. 벽송지엄은 금강상 묘길상사에서 <대혜어록>을 보다가 의심을 일으키고 <고봉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1520년(중종 15)에 지리산

벽송사를 행화도량으로 삼아 초학자에게 종필의 <도사>와 보조의 <절요>로 여실지견을 세우게 하고, 이어 대혜의 <서장>과 고봉의 <선요>로써 간화결정의 요체로 삼아 활구참선을 지도하여 일대사를 깨닫게 하였으니 한국 불교의 수행과정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벽송지엄은 부용영관, 승인설은, 경성일선 등 9인의 대 종장을 양성하였으며, 부용영관은 정허유정(1520~1604)과 부휴선수(1543~1615)를 배출, 오늘날 한국불교의 승려는 모두가 그 문손이다. 근세 한국 간화선의 증중조 경허선사도 벽

남이 발의하여 벽송선원의 하한거 대종이 뜻을 모아 결행하게 됐다. 당초에는 벽송사의 환경이 넉넉지 못해 비구 30명 비구니 30명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제방의 선원에만 공문으로 안내하였는데도 비구 30명 비구니 80명이 신청하여 전행방법을 고심하게 되었다. 모두가 선회 취지에 발심하여 정진하겠다는데 어떻게 선별할까 그 기준을 충분히 논의하다, 어렵지만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다. 정진계획은 당초에는 새벽과 저녁에 각각 2시간씩 좌선을 하고 오전 2시간은 황벽의 <전심법요>를 선주가 강의하고 오후 2시간은 논강을 하기로 하였으나 선원님들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 5일간은 월암 스님이 지은 <간화정요>를 교재로 중국선종서를 강의하고 1일은 <전심법요>, 1일은 특강으로 오전은 필자가 '한국선종사와 벽송사'를, 오후에는 수불 스님의 '한국 선원에서의 간화선지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1일은 그 동안 분민토의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논강을 하여 수행과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루는 산행을 하여 선사들의 행적을 마음에 새기고, 입제와 해제에는 정진으로 회향하였다. 이번 선회는, 수용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누구나 불평없이 화합하고 발심정진하는 신심나는 과정이었다. 모두가 환희심을 내어 맑은바소임에 충실하고 대중 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없는 여법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선회가 향후에도 계속되면서 이를 통해 눈높은 선지식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불교를 더욱 빛내주기를 간절히 열원한다. 종단에서도 뜻깊은 선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강의·논강·실참... 결사정신 잇는 정진열기**

송사에서 주석한 적이 있다. 경허선사는 이러한 전통을 되살려 1899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결사하고, 1902년에는 범어사 계명암에서 수선사를 결사하여 내압과 외세로 쇠퇴해가던 실참실구 선수행 기풍을 복원했다. 그의 제자 환암선사는 1922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선회를 결사하여 한국불교의 수선결사 정신을 계승했다. 이와 같은 선종사적 선상에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지리산 벽송사에서 성대한 제1회 벽송선회는 현실을 고뇌하며 정진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도되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안거는 전통방식대로 하지만 산철결제 차원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으면서 간화선수행에 좀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 선주(禪主) 소임을 맡은 월암 스

**‘연대’만평** 심민섭

이런 캠페인 벌여야겠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대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성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납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